

○ 최우수상 (1명)

교실명	서대신1동 주민센터
학생이름	신**
추천이유! (생활과학교실의 장점)	
<p>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은 다양한 과학 분야를 다루고 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주제에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최첨단 미래기술 등 다양한 과학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코딩과 드론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수업 중간 중간에 전자 피아노, 거깃말 탐지기, 골전도 스피커 등도 만들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생활과학교실은 과학현상과 원리들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아주 쉽게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p> <p>**이는 처음 3학년 2학기 때 이 프로그램을 접했고 지금은 4학년이다. 교재를 처음 보았을 때에는 주제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계속 수업을 듣고 아이가 어려운 주제도 쉽게 이해하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에게 그날 배운 것을 이야기 해 줄때는 꾸준히 실험하고 설명 듣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너무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았다. 생활과학교실은 과학실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강조되고 있는 STEAM(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원소를 배우면서 주기율표도 배우고, 원소를 각 시간 대에 배치해서 시계를 만들기도 한다. 롤러코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배우고. 동물세포, 식물세포 차이는 클레이로 직접 만들어 익힌다. 수학의 직선을 이용한 스트링 아트로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드는 수업도 한다. 각종 메이커 수업을 통해 과학 기술, 공학을 익히고 과학의 언어라는 수학을 통해 예술을 배우기도 한다. 나는 어떤 수업보다 생활과학교실이 융합교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p> <p>교재를 읽어보면서 너무 내용도 좋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생활과학교실을 왜 큰 아이 때는 몰랐는지 아쉬움이 남았다.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 수업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아이가 생활과학교실에 참여했으면 한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 정말 감사하다.</p>	
수혜사례	
<p>**이는 큰 아이와 달리 역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고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러나 우연히 부산해양자연사 박물관의 Fun & Fun수업을 듣게 되었고 주관하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어 생활과학교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과학교실의 수업이 학교 과학시간과 달리 주입식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수업에 거부감이 없었다. 그래서 매번 “**이 이번 주는 뭐 만들었고 무슨 수업이었어?” 라고 물으면 설명도 잘해주고 완성하지 못한 부분은 책을 가져와서 엄마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완성하기도 했다. 특히 여름 과학캠프를 갔다 와서는 여러 학교 친구들과 만나고 골든벨도 하고 하면서 좋은 경험이 되어서 요즘은 “우주 과학 캠프 있는데 갈래? 라고 물으면 예전에는 엄마 마음대로 신청했다고 짜증을 내었는데 바로 대답이 나온다 “무조건 갈래요.” 그리고 가끔 과학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깜짝 깜짝 놀라게 된다. **이의 생활과학교실로 형은 금요일에 과학터치라는 좋은 강연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형은 생활과학교실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금요일에 과학터치도 알게 되고 수요일에 바다 특특이라는 프로그램도 알게 되었다. 강연장소가 해운대, 양정이라 우리 집에서는 조금 멀지만 VOD로 강연도 볼 수 있고 강연 자료도 올려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두 아들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만으로도 감사하다.</p>	

○ 우수상 (3명)

교실명	금곡동 (금곡도서관)
학생이름	윤**
추천이유! (생활과학교실의 장점)	
<p>적은 수업비로 질 높은 과학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과학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저희 아이가 나이가 어려 수업을 들을 수 없어 가까운 과학실험학원을 4회에 15만원을 주고 수강하였는데 아이가 매번 간단하고 쉬운 수업에 몹시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생활과학 수업을 듣게 되고 아이는 전자회로를 응용한 피아노 만들기, 이어폰 만들기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매번 수준 높은 수업에 아이가 따라갈까 걱정했지만 강사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매번 이해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방학마다 생활 과학 교실이 쉬는 시기에는 부산교육대에서 진행되는 과학 실험 수업을 듣습니다. 일주일 수업에 25만원입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생활과학 교실 수업진행 목차를 보시고 어디서 하는 거냐고 물으시고는 몹시 놀라셨습니다 본교에서 진행되는 수업 수준을 더 높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수업기간과 수업비용을 빼고도 단순 수업의 질만을 따져서라도 개인적으로 생활과학 교실의 수업이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강사님께서도 친절히 설명해주시고 매번 학부모에게 열리는 행사도 자주 연락해 알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열렸던 사이언스 버스 수업은 각 과학관을 매번 눈으로 보던 저희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p>	
수혜사례	
<p>저희 아이는 전자회로를 이용한 피아노 만들기를 수업에서 배우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응용하여 1학기에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발명 아이디어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었고 2학기에는 이어폰의 원리를 응용하여 교육청에서 개최하였던 발명대회에서 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학생들도 다니는 과학 학원에서 도움을 받아 참가하였었는데 따로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생본인의 힘으로 상을 탄 아이는 저희아이 빼고는 없어서 여러번 학부모들의 다니는 학원 문의를 받았습니.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생활과학 수업의 도움을 받았더니 놀라워 하기도하고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처럼 가까운 곳에서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과학 수업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도 신청했고 들을 수 있는 나이까지는 계속 다닐 계획입니다 늘 과학 수업을 위해 애쓰시는 강사님들과 프로그램진행해주시는 과학기술협의회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p>	

교실명	복산동 주민센터
학생이름	김**
추천이유! (생활과학교실의 장점)	
<p>나는 월요일이 너무나도 기대된다. '오늘은 또 어떤 과학 수업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나오신 엄청난 전문성이 있으신 강사님께서 우리들의 반응을 살피며 흥미롭게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며 설명도 잘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내가 바로 메이커' 라는 수업에서 나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 메이커 활동을 통해 제도, 설계, 나눔, 배우고 포기하려 하지 않는 정신 등을 배우게 되었다. 난 이때까지의 과정이 힘들기도 할 때가 적진 않았지만 그만큼 생활 속에 쓰이는 많은 과학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기뻐다.</p>	
수혜사례	
<p>이 과학수업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증발'과 관련이 있는 '확산 - 사라지고 퍼지고' 즉 증발은 액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학교수업에도 좋은 효과를 주기도 했고 과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생겼으며 나의 진로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실험을 함으로써 그 현상을 시각, 후각 등으로 느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수 있었다. 그리고 과학을 친구처럼 느낄 수 있는 생활과학교실.... 2년 동안 무엇보다도 새로운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p>	

교실명	명지2동 주민센터
학생이름	강**

추천이유! (생활과학교실의 장점)

집근처에서 다양한 주제의 생활과학수업을 들을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진 강사분이 수업을 해 주신다. 아이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과학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를 제공해주고 관련 실험도 할 수 있다. 년1회 정도 별자리 탐험 등 유익한 체험기회도 있다. 수강료가 무료이며 재료비만 납부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적다. 과학꿈나무들이 과학을 계속 좋아하게 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수혜사례

생활과학수업을 2년간 수강한 아들의 교재를 몇권 들여다보았다. 즐겁고 신기했던 실험, 실망스러운 게임, 새롭게 알게된 점까지 아들의 소감에서 지루하거나 재미없었던 순간은 하나도 없었다. 아들의 과학 호기심이 자극받고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던 알찬 프로그램이라는 확신이 든다. 마지막 소감으로 적은 '과학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끝으로 2년간의 생활과학교실에서 공부한 아들의 소감을 아래에 남기면서 생활과학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연필심이 전기가 통하는 줄 알게 되었다.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채소를 많이 먹고 따뜻하게 지낸다. -비밀의 방을 배우고 줄무늬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요오드 반응에서 갑자기 색깔이 순서대로 바뀌어서 신기했다. 도레미파솔 같다. -적외선 센서에 불이 만나와서 실망했다. -에너지 올림픽에서 풍력, 수력, 조력, 원자력, 태양광 그리고 온실효과에 대해서 알게되었다.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 오각형12개, 육각형20개를 새느라 힘들었다. -구리와 철판이 녹슬지 않게 페인트칠을 해야한다. -오늘은 재미있는 도형경기를 해서 좋았다. -치약을 만들면서 코코넛 오일과 식초 30g 성분을 알게 되었다. -쌍둥이 만들기에서 피라미드를 완성하기 힘들었다. -돌가루를 만져보았다. 어떤것은 부드럽고 어떤것은 딱딱했다. 화강암, 퇴적암.. -공룡화석을 찾아서 화석을 조립했다. 뿌듯했다. -자성유체 자석이 좋았다. 뽀족뽀족하게 달라붙는게 신기했다. -빛이 합쳐지는 것을 처음보았다. 색깔과 다르구나. -색깔이 바뀌고 비타민 C가 제일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큐브, 17층 타워 만들기에서 2등을 하였다. -AR,VR로 태양계 체험을 했다. 집에가서 해보아야지! -심장박동수로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탈레스라는 과학자가 제일 존경스럽다. -과학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 장려상 (7명)

교실명	가야1동 주민센터
학생이름	임**
추천이유! (생활과학교실의 장점)	
<p>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저는 아이7세때 알았습니다. 3학년부터 수업이라 아이가 학년이 되면 꼭 이 프로그램을 하리라 다짐했었고 마침 학교 앞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3학년 과학수업도 추가되고 무엇보다 과학원리 개념 설명과 동시에 실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들고 그냥 그자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년40주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빠짐없이 잘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생소한 단어와 실험이었을 테지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과학지도 선생님아래 과학기술협회 등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p>	
수혜사례	
<p>과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는 딸아이에게 생활과학프로그램과 1박2일 캠프 또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꼭 캠프를 가고 싶었던 딸아이의 바람대로 가야1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귀로 여러 번 듣는 이론보다 학교나 집에서 접할 수 없는 실험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과학학원도 잘 없을뿐더러 있다 해도 고가이고 과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접해보므로써 과학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계기이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p>	

교실명	동삼1동 주민센터
학생이름	이**
추천이유! (생활과학교실의 장점)	
<p>생활과학교실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매회 수업마다 여러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질문과 대답 토론으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즐거운 과학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해 볼 수 있어 오감으로 과학원리를 배울 수 있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업이 재미있었지만 원자와 분자 수업과 0,1로 나타내는 코딩수업, 미니 정수기, 전자피아노와 공기청정기 등 메이커 수업을 아이가 정말 재미있어했던 것 같습니다.</p>	
수혜사례	
<p>생활과학교실 덕분에 저희 딸은 과학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부쩍 더 많아진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학교 과학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생활과학교실 다녀온 날은 수업때 만들어 온 것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해주느라 두 눈이 초롱초롱 합니다. 2019년에도 더 알찬 수업과 프로그램을 기대하며 수업 신청합니다.^^ 아이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미있는 분야로 스며들게 애써주시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한 연말되시기 바랍니다.</p>	

교실명	용호1동 주민센터
학생이름	김**

추천이유! (생활과학교실의 장점)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과학실험을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직접 만지고 만들 수 있어 어렵게만 생각하던 과학을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 원리부터 늘 어려워하던 지구와 우주의 관계까지 직접 만들고 그려 볼수 있어 오래 기억 할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소 사람의 인체에 관해 관심이 많았던 **는 마지막 수업 해골이를 만들어 보며 우리 몸의 모든 뼈 이름을 집에와 설명해 보이는 대견함을 보였습니다. 전문 강사의 가르침과 배운 내용을 실험해 보니 과학은 재밌는 과목이라는 걸 느끼며 다음 수업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수혜사례

과학은 어렵다고 모르는 용어도 너무 많아 싫다고만 하던 **는 지난 학기 생활과학교실에 참여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번 과학잡지를 챙겨 읽는 등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수업 후 만든 작품으로 과학 원리를 멋지게 설명까지 합니다. 어렵게만 여겨왔던 과학을 흥미를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생활과학교실에 참여해 수업을 받은걸 뿌듯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실명	하단2동 주민센터
학생이름	이**

추천이유! (생활과학교실의 장점)

유독 어렸을 때부터 신기한 것 특이한 것들을 이리저리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우리 **이...초등학교 들어가서 방과후 과학수업이 너무 재미있어 보이고 하고 싶어 수업신청을 했지만 신청학생이 너무 많아 제비뽑기 후 탈락하게 되어 쭉 수업을 못들었습니다 부모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웠어요 초3학년이 되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그것도 토요일 오전에(그 시간에 집에서 있었다면 주구장창 티비만 봤을) 너무 감사하게도 생활과학교실 수업이 생겼다는 얘길 듣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우선 거리가 가까워 좋고 매번 주제도 넘 새롭고 흥미롭고 재료 또한 허접하지않고 제가 보기에 '와~이런것도 만들었어?'할 정도로 넘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이도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린적도 많답니다. 학교과학수업에서도 접할 수 없는 생활 속 과학을 넘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주셔서 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도 이번여름에 생활과학교실에서 갔던 캠프 넘 기억에 남고 진짜 진짜 재밌었다고 내년에도 꼭 가겠다고 했는데...내년에도 꼭 하단동에서 수업진행해주세요~~이왕이면 토요일오전으로~ 플리즈ㅠㅠ 1년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수혜사례

어려울 것 같은 생활 속 과학주제를 쉽게 배우고 접해 볼 수있는 기회증진, 만든 재료를 직접 가지고 갈 수 있어 좋았어요...그리고 여름에 있었던 1박2일 캠프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재미있었다고 하며 자녀의 자립심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1박2일 캠프를 여기서 처음 가봤답니다.)

교실명	화명1동 주민센터
학생이름	심**

추천이유! (생활과학교실의 장점)

생활과학교실에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수업이 끝나고 아이가 집에 오면 늘 오늘은 어떤 수업을 했는지 엄마인 제가 궁금했습니다. 수업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교재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재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학교 밖의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아이가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수업이 가능하게 너무 좋습니다. 늘 같은 방법으로 책으로만 보는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난 체험위주의 과학수업을 통해 과학의 중요성을 알고 아이들의 관심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과학에 흥미를 가 질수 있는 수업구성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수혜사례

아주 우연히 생활과학교실을 1년 전 쯤에 알게 되어 평소에 늘 호기심이 많았던 저희 아이에게 좋을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호기심은 많았지만 학원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집에서 제법 걸어 가야하는 곳이라 처음에는 걱정도 했지만 몇 번 과학교실에 갔다 오면서부터는 제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결석도 지각도 하지않고 너무도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평소에 느끼는 호기심들을 직접 손으로 만들고 눈으로 보면서 신기해하고 또 거기에 창의적인 생각을 더해서 집에 와서 교재들을 본인 생각에 맞게 변경해서 만들어도 보고 어른인 제가 봐도 참 신기한 수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했던 호기심들을 직접 교재를 가지고 만들다보니 그 지식들을 아무래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에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6이되어도 또 하겠다고 지금부터 엄마에게 꼭 접수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교실명	화명3동 주민센터
학생이름	권**

추천이유! (생활과학교실의 장점)

1년(상.하반기)동안 생활과학교실에 다니면서 정말 도움이 되고 좋았던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론이랑 만들기랑 같이 수업을 하니까 흥미가 생기고 두 번째로 제가 과학이 좀 약하고 재미없어했는데 생활과학교실에 다니면서 과학에 대해서 잘 알게되고 재미있어 졌습니다. 세 번째로 제 꿈이 로봇 공학자인데 로봇공학자가 꿈인데 잘 모르지만 로봇공학자에게 중요시로 여기는 것이 과학과 설계, 만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과학교실이 로봇과 관련이 있는 메이커 프로그램도 있어서 좋습니다. 네번째로 생활과학교실에 다니면서 많은 언니오빠와 친구들과 친해져서 좋은거 같습니다. 다섯번째로 강사님이 이론 등을 경험담이나 농담 등을 넣어서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캠프 때 다양한 프로그램(별자리이야기,천연염색,골든벨 퀴즈)등 을 진행해 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보낸 거 같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1년동안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혜사례

제가 원래 과학에 흥미가 없고 과학이 약했었는데 생활과학교실을 수강하면서 과학에 흥미가 생기고 과학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 같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책임지시고 기획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타나 띄어쓰기가 틀린 게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실명	화명도서관
학생이름	조**

추천이유! (생활과학교실의 장점)

집에서 늘 책으로만 접했던 과학을 직접 실험해보고, 친구와 형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만들고 토론을 해보니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았던 화성탐사선도 만들고, 미니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방 책상에도 올려놓고,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피아노도 직접 만들어보니 과학의 원리를 이용한 만들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자세한 설명으로 원리를 잘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베르누이의 법칙, 지구의 구조 등도 무척 기억이 납니다. 과학적 원리로 팩을 팡창하게하여 봉지라면을 끓여 먹었던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동생은 1학년인데도 제가 생활과학시간에 만든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생활과학수업을 너무 하고 싶다고 할 정도입니다. 동생에게 설명도 해주고 생활과학교실에서 만들었던 딸기우유도 같이 만들어 보니 더욱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혜사례

생활과학교실을 통하여 주변의 작은 물건들, 현상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이든지 직접 실험해보고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원리가 궁금해서 책도 더욱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어머니께 집에 고무줄과 나무젓가락, 플라스틱통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저도 여러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과학을 좋아하는 저에게 1년 동안 참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과학교실에 계속 참여하여 더 많은 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